

“한국불교가 가야할 방향은 바로 이것입니다. 조직력을 갖춘 불교대학 동문회는 지역 포교와 사회활동에 가장 적합한 형태며, 우리는 그것을 입증해왔습니다.”

김상길(영남불교대학 총동문신도회장)

“원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49명의 조계종 포교사 대부분이 원주불교대학 출신입니다. 지역의 각종 불교행사 사회와 집전도 우리 동문들이 맡고 있죠. 우리를 주시하는 눈들이 많아졌습니다.”

정두환(원주불교대학 총동문회장)

“2~3년 안에 우리 대학 동문들이 충북지역 신행을 이끄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충북불자들 대부분이 그렇게 믿고 있고, 우리는 그럴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전철호(충북불교대학 총동문회 사무국장)

불교대 동문회 지역신행 ‘핵심 동력’

불교대학 동문회(이하 동문회)가 지역 신행을 이끄는 핵심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동문회 활동이 활발한 지역의 경우는 동문회가 지역 불교를 좌우한다. 3~4년 된 동문회는 지역 불교의 중심 세력으로 떠올랐고, 일부 불교대학은 최근 동문회를 결성하고 신행과 사회활동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본지가 전국의 조계종 인가 불교대학 열여섯 곳과 비인가대학 한 곳 등 모두 열일곱 곳을 조사한 결과는 이 같은 사실을 잘 보여준다. 특히 각 불교대학들이 매년 100~200여명의 졸업생들을 배출, 해마다 동문수가 늘기 때문에 활동인원과 범위는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바야흐로 동문회가 지역불교의 신행흐름을 바꿔놓고 있는 것이다.

▷ 동문회 ‘힘’의 원천은?

동문회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우선 이들은 2년 동안 체계적으로 공부한 불자들이라는 점이다. 탄탄한 불교지식을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췄다는 얘기다.

각 지역 불교대학이 배출하는 조계종 포교사들이 동문회 구성원으로 활동함으로써 동문회 활동 폭과 깊이를 넓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체계적인 조직력도 장점이다. 각 기수별로 모임이 조직돼 있고, 이들이 총동문회를 구성해 활동한다. 일사불란하면서도 포교복지 등 각 분야별로 조직적인 활동을 펼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지역에서 뿌리 내린 터줏대감이 많고, 이들이 지역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점도 동문회 활동이 갖는 큰 장점이다. 일례로 해남불교대학의 경우 해남의 각급 기관장들이 동문회에 속해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 하나,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독립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도 동문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사찰 신도회가 주지 스님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경우가 많지만 동문회는 그런 제한이 없다. 창의적이고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큰 것이다.

▷ 어떤 활동을 하나?

대부분의 불교대학 동문회는 신행·교육·포교·봉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신행의 경우는 정기법회나 성지순례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경전공부반을 통해 자체적으로 재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많다. 또 거의 모든 불교대학이 예의예절 지역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군부대나, 어린이·학생

법회 등을 통해 포교에 나서고 있다.

이와 같은 공통적인 활동 외에 각 불교대학 동문회는 지역 여건과 동문회 정서에 맞춰 나름대로 특징을 살린 활동을 하고 있다.

50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영남불교대학은 졸업생 기수별로 6개 구역(팀)의 조직이 구성돼 있으며, 기수별 회장단이 구성돼 있다. 그리고 이들 98개의 기수별 조직이 총동문회를 이루는 체계화된 조직을 자랑한다.

영남불교대학 동문회와 함께 대구불교신행을 주도하고 있는 경북불교대학과 대구불교대학 동문회도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린 활동으로 지역에서 인기가 높다.

탄탄한 지식과 왕성한 의욕

조직력·인맥 활용이 ‘큰 밑천’

신행단체와 연계·조직화 등 과제

경북불교대학 동문회는 ‘불광축구회’를 통해 지역민들과 교류하고 있고, 대구불교대학은 교도소와 소년원 포교에 나서고 있는 포교사모임 동아리 활동이 눈에 띈다.

부산의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동문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108참회와 다라니 수행을 하는 ‘동문기도법회’를 통해 수행부위

를 확산시키고 있고, 울산 정도불교대학 동문회는 1년에 2~3차례 초청법회를 통해, 해남불교대학은 ‘유명인사 초청 특강’을 열어 지역에 불교바람을 일으켰다.

전주의 전북불교대학 동문회는 ‘문화재답사팀’을 두고 정기적으로 사찰 문화재를 돌아보며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고,



경북불교대학 동문회 ‘불광축구단’은 대구지역 기관 및 단체들과 축구를 통해 포교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경북불교대학

평주불교대학과 전주 화엄불교대학 동문회는 불교신아와 성지순례 활동이 활발하다.

청주 충북불교대학 동문회는 곧 동문회 소식지 ‘바라봄’을 발간해 지역에 불교를 알릴 준비 중에 있으며, 천안 각원사불교대

동문회는 지난 8월 결성된 조계종포교대학 동문회는 서울노인복지센터 등 조계사가 운영하는 시설을 통해 사회활동을 펼치는 한편, 기도정진법회를 병행하면서 한국불교 1번지 불교대학 동문회의 위상을 갖추어나갈

▷ 동문회에 거는 기대

동해불교대학 최종옥 교무처장은 “지역 불자교육기관으로서 확고한 위상을 갖추고 있는 데다, 앞으로 동문수가 계속 늘게 되면 더 다양하고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불교대학 동문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필요도 있다. 우선 규모가 계속 확대되는 것에 맞춰 더 효율적으로 동문회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화가 필요하다. 또 지역의 다른 신행단체 또는 사찰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이와 함께 재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도 필수적이다.

나아가서는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개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주불교대학 동문회는 지역환경과 복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해 지역과 함께하는 동문회 이미지를 심었다.

한명우 기자 mwuhan@buddhapia.com

일터가 도량입니다

‘구도’의 신호등 언제나 파란불

서울메트로 최우영 신호분소장

지난 8월 21일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3호선에서 신호기 장애가 발생해 이 구간을 운행하던 열차들이 잇따라 정체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는 뉴스를 본 최우영 서울메트로 신호분소장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 한두 번 접하는 뉴스는 아니지만 신호기 고장에 따라 열차 지연 불만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인터뷰를 볼 때마다 안타깝다.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호등,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지하철도 신호에 의해 출발하고 멈춘다. 하지만 신호기에 이상이 발생하면 안전 열차는 멈추어야 하고, 열차 정체는 피러를 볼게 된다.

열차를 손에 놓지 않는다. 긴장을 완화하는데 열차를 손에 드는 것만큼 좋은 방법도 없다고 최 분소장은 말한다. 집에서는 20~30분간 꼭 예보를 올리고, 사무실에서는 오가는 직원들에게 간단한 부처님 말씀을 전해 주는 것이 최 분소장의 빠뜨릴 수 없는 일과다.

최 분소장이 거느리고 있는 직원은 20여 명. 이들은 수시로 신호기가 있는 현장과 사무실을 오간다. 이들을 지휘하고 있는 최 분소장은 회의 때나 사무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다. 구로디지털역 직원치고 최 분소장이 불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최우영 분소장이 지하철 신호기 현장에 나가 있는 부하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

이 때 이상 신호기를 수리하기 위한 인력이 곧바로 투입되는데, 최우영 서울메트로 신호분소장은 바로 지하철 2호선 방배-당산 구간의 신호기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다. 최 분소장은 1974년 서울지하철건설본부에 입사한 이후 지금까지 33년 간 이 분야에서 근무한 베테랑. 하지만 직장생활 처음이나 지금이나 늘 긴장해 있기는 마찬가지다.

“집에 가서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신호기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신호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되지 않지만 기민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긴장을 풀 수 없다.

그래서 최 분소장은 집에서나 구로디지털역에 있는 사무실에서나 항상

“이렇게 좋은 가르침이 있는데 저만 알고 있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한 다 해야죠. 저는 이게 낙이예요.”

최 분소장은 지난 2000년 서울지하철공사 범우회에 가입해 신행을 하면서 조계사 불교대학을 마치고 조계종 포교사가 됐다. 그리고 지금은 조계사 신행 안내부 일로 팀장을 맡아 일요일마다 조계사에서 초심자들에게 조계사와 불교를 알리고 있으며, 서울·경기 포교사단 군12팀장으로 군 포교에도 나서고 있다.

“그냥 좋아요. 부처님 일을 한다는 게 말이죠. 제 좌우명이 뭐지 아세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응무소주 이생가심(應無所住 而生其心)’입니다. 죽을 때까지 머무르지 않을 생각입니다.” 글·사진=한명우 기자

윤년 윤달의 효도 선물 대광 [금물] 수의로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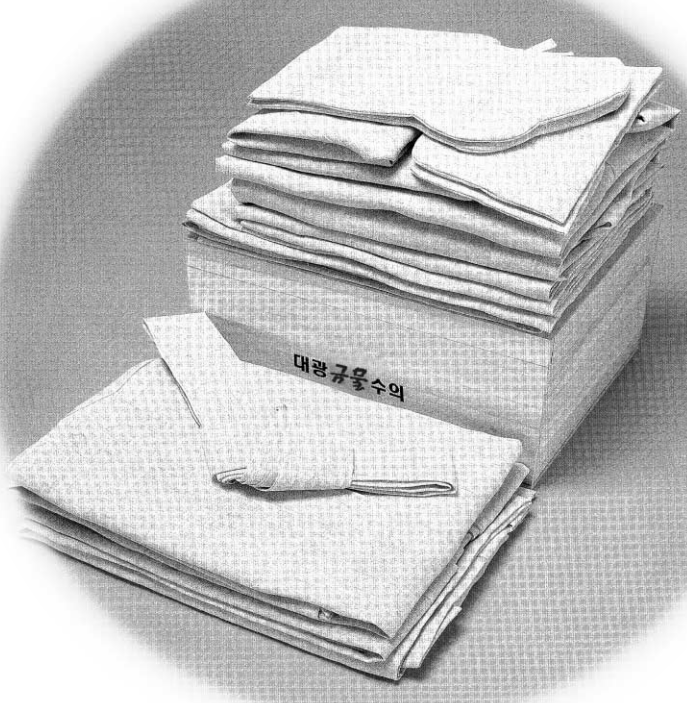
(상표출원번호 0039174)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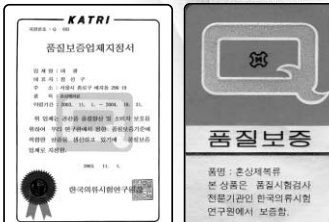
02)747-1760

전화 주문하면 희망 상품 삼베 견본을 보내드립니다. 미리 확인하세요!
견본과 상품이 다를 경우 100% 교환 환불 해드립니다.

- 상품은 온라인 입금 후 원하시는 일자에 배송시켜 드립니다
- 홈페이지나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어떠한 상품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한 품질의 삼베로 한뼘한뼘 정성드려 만들었습니다.
- 상품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한국의류시험연구원(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원단 성분분석표를 첨부해드립니다.
- 모든 상품은 오프나무상자에 포장해드립니다.



수의제품 품질보증업체
2002년 한국의류 시험 연구원
Q마크 획득



수의 가격표					
상품호칭	제작방법	재질(삼베)	원단기공손질	원사생산	판매가격(25%할인가)
안동포	수제직	대마(삼베) 100%	천연가공 경북안동	경북안동	3,800,000
1호	수제직	대마(삼베) 100%	천연가공 경북안동	중국(산동)	1,250,000
2호	수제직	대마(삼베) 100%	경남 남해	중국(사천)	835,000
3호	수제직	대마(삼베) 100%	중국	중국	475,000

세시풍속(歲時風俗)

윤달(閏月)은 제액없이 무난하게 여고 모든일을 거리없이 하는 풍속이 내려오고 있다. 특히 일년중에 한달이 덩으로 있는 윤달에는 손재 등이 없는 기간으로 모든일에 부정을 타거나 액이 끼이지 않는 달로 인식되어 왔고, 그래서 평소엔 꺼려하던 이장(조상의 묘를 옮기는 일), 집을 헐고 새로 짓는 일 등을 윤달에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예이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집안 어른의 수의를 마련해두면 집안 어른이 무병장수하고 자손도 번창한다는 세시풍속이 있다. 그 뜻을 머무어 짐작컨대, 수의를 마련함으로 자손들은 여성이 얼마남지 않았던 집안 어른을 더욱 공경하고 효심으로 만드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며 집안 어른은 죽음을 다스리고 대비하면서 여성에 대한 진한 삶을 살고자 했던 조상들의 지혜라 여겨진다.